



고등교육에 종사하는 기독교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온전케 하심을 기억하라

☎ 인터뷰어 조성표(경북대 교수, 실행위원장)

국제기독교대학컨퍼런스에서 '서구의 기독교 고등교육'을 주제로 발표한 기독교 개혁교단 세계선교부(CRWM)의 디렉터인 게리 베커(Gary Bekker)를 동역회 실행위원장인 경북대학교 조성표 교수가 만났다.



Question 조성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몸담고 계신 기독교 개혁교단 세계선교부(CRWM)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게리 베커 CRWM은 하나님의 구속을 전파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50여 개국에서 2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수많은 동역자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주요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특별히 미전도 종족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회와 지역 사회의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독교 교육기관 및 교육자들과 협력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관련 단체들이 각자의 상황과 배경에 복음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조성표 이번에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성장 배경이나 인생의 전환점 등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nswer 게리 베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인생 최초의 전환점은 다섯 살 무렵인 것 같습니다. 화학을 전공한 아버지는 어느 기업에서 국방에 관련된 연구를 하셨는데, 크비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온 가족이 펜실베이니아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전학한 학교에는 나와 같은 과학자 집안 학생들이 50여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팔래치아 산맥에 위치한 산골 마을이라 부모님이 광부나 농부이고 글도 읽을 줄 모르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Question 조성표 **그렇군요. 그러면 선교에 관심을 가진 것은 언제부터 인가요?**

Answer 게리 베커 그로부터 6년 후 아버지의 연구가 마무리되어 뉴저지로 돌아오면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에드워드라는 분을 통해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나중에 신학교에 가게 되고 선교를 공부하면서 그것이 나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교사들의 믿음과 삶이 전 세계적이라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마치고 필리핀으로 가서 7년간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훈련하는데 힘썼습니다.

Question 조성표 **조금 특별하게 박사과정을 이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Answer 게리 베커 저는 트리니티기독교대학(Trinity Christian College)에서 학부를, 칼빈신학교(Calvin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교육인류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신학이나 선교학을 떠난 것이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신학이나 선교학도 해석, 교육학과 인류학도 해석에 관한 학문이라 서로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Question 조성표 **신학대학 대신 공립대학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Answer 게리 베커 사실 저는 의도적으로 공립대학을 택했습니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 사역하는 데 신학대학보다 공립대학의 학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진학을 준비하면서 칼빈대 총장님과 상담도 하고 추천서를 부탁드렸는데, 신학대학에서는 내용(contents)을 배울 수 있지만, 일반대학에서는 연구방법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연구자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미시간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기도 전에 감사하게도 고든콘웰신학교(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수직을 제의 받았습니다. 고든콘웰신학교는 학문적 수준도 높고, 규모도 제법 큰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매일 도전적인 환경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식견도 넓히고 좀 더 다양하고 넓은 세계의 사람들과 기관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칼빈대 학장이 될 수 있었고 은퇴 후에는 다시 본 선교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Question 조성표 **자, 이번 국제기독교대학컨퍼런스에서 발표하신 내용으로 화제를 바꿔 볼까요? 주로 고등교육에 대해, 먼저 오늘날 고등교육이 처한 현실에 대해 말씀하셨지요?**

Answer 게리 베커 네, 오늘날의 환경적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규정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이동, 교육과 소득에 따른 계층화, 그리고 종교적 다원주의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이동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시 간, 국가 간, 심지어 대륙 간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410만 명이 자국을 떠나 외국에서 공부했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10년간 두 배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인 유학생들도 12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는 전 세계 유학생들의 3.5%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동들은 주로 고등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통계에 의하면, 1억 7500만 명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으며 1100만 명이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는

다고 반드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등교육은 신분상승의 중요한 수단이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조성표 **종교적 다원주의가 크게 부흥하고 있는데요, 사회가 세속화 되어 가면서 다양한 종교들이 부흥하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Answer 게리 베커 그렇습니다. 피터 버거(Peter Berger)와 안톤 지더벨트(Anton Zijderveld)는 오늘날을 다원주의 시대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인종, 종교 등에서 다양한 집단이 평화롭게 함께 사회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됩니다. 다원주의는 ‘종교는 쇠퇴하고 이성 지배할 것’이라는 현대주의와 대립되는 이론입니다. 다원주의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열정적인 종교운동에 의해 세속주의가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열정적인 종교운동은 이슬람, 오순절 교회, 몰몬교, 로마 천주교, 영국 성공회, 정통 유대교, 중국의 유교 등이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파급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Question 조성표 **기독교 입장에서 고등교육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Answer 게리 베커 네. 특별히 개혁주의/칼빈주의자들이 세계 선교의 관점에서 고등교육을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의도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Question 조성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게리 베커 선교 관점에서 고등교육을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랜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3세기의 도미니크 교단도 선교 목적으로 고등교육을 수행하였습니다.

Question 조성표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님들에 의해 현대적인 고등교육 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 등 주요 대학들이 선교 초기에 설립된 기독교대학들이고, 이 대학들이 한국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Answer 게리 베커 좋은 사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연구하고 교육을 통해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등교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 열정적인 호기심과 놀라움, 기쁨을 가지고 양육하고 확신하고 찬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해야 하지요.



Question 조성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기독교세계관학술 동역회는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자, 목사,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nswer 게리 베커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며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도 함께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사회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어울려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에게서 이러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Question 조성표 종교적 다원주의를 신봉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게리 베커 종교적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우리의 영성이 정통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의 영혼은 그분에게 안심할 때까지 쉴 수 없다.”고 했고, 칼빈은 “신앙의 씨앗은 하나님의 형상을 열매 맺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선배 중 존 디 코르네(John C. De Korne)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중국인의 제단>(Chinese Altars to the Unknown God)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비기독교 국가를 예수님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 형제로 인도하는 것이 선교의 핵심이다.”

코르네(Korne)은 선교사가 명심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1. 기독교의 유일성과 궁극성
2. 다른 종교의 한계성
3. 모든 종교는 부분적이거나 진리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



Question 조성표 고등교육은 학생들이 성인이 된 후의 교육으로, 주로 전공 교육이라 복음 전파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견제 세력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Answer 게리 베커 고등교육은 사회의 권력과 변화의 중심이기에 현대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어려움 때문에 고등교육 분야에서 복음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점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고후 12:9;5:11-21).

Question 조성표 마지막으로 한국의 기독교자들에게 한 말씀하신다면?

Answer 게리 베커 기독교자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독교학자는 학문과 신앙의 세계를 동시에 아우르며 그 분야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학문적인 일에 충실하여 좋은 성과를 얻어야 하며, 개인의 삶과 가정에서도 신실해야겠지요. 직접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기독교 학자는 삶에서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로서, 국가적으로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uestion 조성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진리 탐구의 의의를 깨닫고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CRWM의 사역이 주님 안에서 더욱 발전하고 확장되시기를 소망합니다.